제 1 교시

2020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3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바람들은 맑은 햇살을 뿌리며 돌아간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기도교육청

2020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 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강연을 맡은 약사 ○○○입니다. 저는 오늘 약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아플 때 먹었던 약은 주로 어떤 형태였나요? (대답을 듣고) 네, 약의 형태가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약의 형태를 제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을 다양한 제형으로 만드는 것은 각각의 제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먹는 약인 내복약을 제형에 따라 분류하여 종류와 특징, 그리고 복용 시 주의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여 주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복약에는 대표적으로 산제, 액제, 캡슐제, 정제가 있습니다. 산제는 분말이나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의 가루로 된 약이고, 액제는 액체 형태의 약입니다. 캡슐제는 약물을 캡슐에 넣은 형태의 약이고, 정제는 우리가 흔히 알약이라고 부르는데 약물을 압축해서 일정한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형에 따른 특징과 복용 시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제나 액제는 복용해야 하는 용량에 맞게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제나 캡슐제에 비해 노인이나 소아가 약을 삼키기 쉽고 약효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정제에 비해 변질되기 쉬우므로 특히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복용 전 변질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캡슐제는 캡슐로 약물을 감싸서 자극이 강한 약물을 복용할 때 생기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정제로 만들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어 약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캡슐제는 캡슐이 목구멍이나 식도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제는 일정한 형태로 압축되어 있어 산제나 액제에 비해 보관이 간편하고 정량을 복용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정제는 약물의 성분이 빠르게 방출되는 속방정과 서서히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서방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방정은 오랜 시간 일정하게 약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정은 함부로 쪼개거나 씹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물의 방출 속도가 달라져 부작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유익하셨나요? 이번 강연이 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약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온라인 의약 도서관'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복약 정보는 꼭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강연자의 신분을 밝히며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②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④ 강연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여 강연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보기>는 학생들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제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약사를 진로로 생각하는 나에게 참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
학생 2: 서방정은 복용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해 주어서 좋았어. 그런데 속방정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학생 3: 피부에 바르는 약도 내복약처럼 제형에 따라 특징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졌어. 나중에 온라인 의약 도서관에 접속해서 알아봐야겠어.

① '학생 1'은 강연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듣고 있다.
② '학생 2'는 강연 내용을 자신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며 듣고 있다.
③ '학생 3'은 강연 내용의 순서를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다.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강연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듣고 있다.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며 듣고 있다.

3. 다음은 강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위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약품	제형	특징 및 주의 사항
㉠		○ 약물이 분말 형태임. ○ 복용해야 할 용량에 맞게 조절 가능함. 습기 주의
㉡	액제	○ 노약자가 복용하기 쉬움. ○ 복용 전 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함. 물약
㉢		○ 약물을 캡슐에 넣은 형태임. ○ 자극이 강한 약물을 복용할 때 생기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음.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
㉣	정제 (서방정)	○ 비교적 보관이 간편함. ○ 일정한 형태로 압축되어 정량을 복용하기 쉬움.

① ㉠의 '특징 및 주의 사항'으로 보아 '제형'에는 산제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군.
② ㉡의 '특징 및 주의 사항'에는 ㉠과 같이, 복용해야 하는 용량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군.
③ ㉢은 '특징 및 주의 사항'으로 보아 ㉡에 비해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는 제형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의 '제형'으로 보아 '특징 및 주의 사항'에는 함부로 쪼개거나 씹어서 복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군.
⑤ ㉣의 '특징 및 주의 사항'에는 약의 효과를 오랜 시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군.

[4 ~ 7]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카드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비현금 결제 방식을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불편하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잔돈을 주고받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새로운 화폐를 제조하기 위해 천억 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흐름을 예측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어 공공의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2: 비현금 결제 방식을 이용하면 어디서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거래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찬성 1: 대표적인 비현금 결제 방식 중 하나인 신용카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현금 결제 방식을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면 거래에 제약은 없을 것입니다. [A]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비현금 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새로운 결제 방식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비현금 결제 방식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끝으로 현금 없는 사회는 현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유라는 가치가 확대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지향점이라고 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의 자유가 축소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2: 비현금 결제 방식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비용은 우리나라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 1: 구축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지라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B]

토론 후 과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확장하여 주장하는 글 쓰기

(나) 학생의 초고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하다. 현금은 결제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거래 환경이 비현금 결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미 많은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비현금 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을 불편을 이유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비현금 결제 방식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현금 없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은 너무나 많다. 이미 국가 간 경제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이 구축되어 있어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갔을 때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산업이 개발되어 국제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합의 없이 진행된 사회 변화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4.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쟁점 1] 현금 없는 사회는 편리한가?
○ **찬성** 1: 현금 휴대 및 사용의 불편함과 비현금 결제 방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을 들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① ○ **반대** 1: 비현금 결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밝히고 있다. …… ②
[쟁점 2] 현금 없는 사회는 경제적인가?
○ **찬성** 1: 화폐 제조 비용을 수치로 제시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③ ○ **반대** 1: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경제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 ④
[쟁점 3] 현금 없는 사회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가?
○ **찬성** 1: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반대** 1: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함을 근거로 들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의 반대 2는 상대측이 인용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

② [A]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며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B]의 찬성 2는 상대측 발언 내용을 재진술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④ [B]의 반대 1은 상대측의 이의 제기를 일부 인정하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⑤ [A]의 반대 2와 [B]의 찬성 2는 모두 상대측 주장을 요약하며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이 메모한 내용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문단]
○ 토론 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야겠어.
○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나의 입장을 강조해야겠어. ····· ①

[2문단]
○ 토론에서 언급된, 현금 없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 방안과 함께 제시해야겠어. ····· ②

[3문단]
○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을 밝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어. ····· ③
○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해야겠어. ····· ④

[4문단]
○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공동체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 ⑤

7. <조건>에 따라 (나)의 마지막 문단에 내용을 이어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① 현금 결제 방식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② 현금 결제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면 한쪽 날개로만 나는 새처럼 불균형한 사회가 될 것이다.
③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는 현금 없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더욱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④ 공동체가 함께 가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현대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새로운 물결이 될 것이다.
⑤ 이처럼 공동체가 함께 논의한다면 현금의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8 ~ 10] (가)는 작문 과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과제

○ 글의 목적: 폰트 파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관심 촉구
○ 주제: 폰트 파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자.
○ 예상 독자: 폰트 파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

(나) 학생의 글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전달 효과나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폰트 파일을 사용한다. 폰트 파일은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으로 작성된 문자 및 기호 등 한 벌의 디자인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폰트 파일을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작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폰트 파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는 학생들이 폰트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폰트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 알면서도 폰트 파일을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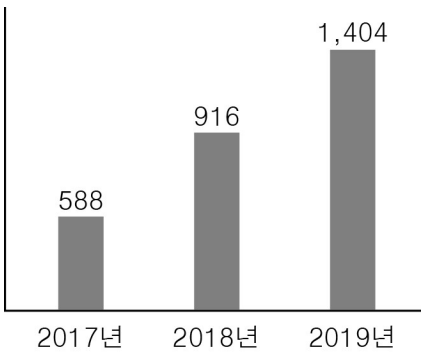
[A] 폰트 파일은 타인의 노력이 담겨 있는 저작물이므로 우리는 폰트 파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고 사용하자.

8.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글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폰트 파일의 배포 절차를 제시한다.
②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폰트 파일의 개념을 정의하여 제시한다.
③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제시한다.
④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폰트 파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다.
⑤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한다.

9.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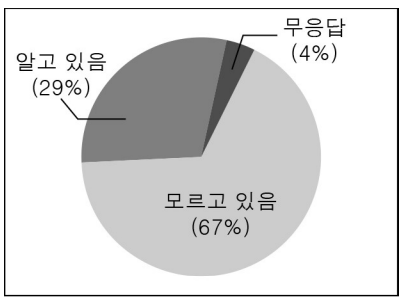
[자료 1] 통계 자료



<폰트 파일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상담 건수>

[자료 2]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의 '알고 있음' 응답자 대상)

구분	비율(%)
모른다	65
안다	20
기타	15

[자료 3] 전문가 인터뷰

"폰트 파일의 저작권 내용이 너무 복잡해 사용자들이 이를 모두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 제작자는 폰트 파일 배포 시 저작권 보호 여부 및 내용을 명시적으로 안내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지킬 수 있도록 폰트 파일 저작권 확인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해야겠군.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해야겠군.
③ [자료 3]을 활용하여,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작자가 사용자를 위해 저작권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추가해야겠군.
④ [자료 2-㉮]와 [자료 2-㉯]를 활용하여,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저작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음을 원인 분석의 근거로 사용해야겠군.
⑤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폰트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 알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학생들의 문제의식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해결 방안으로 강조해야겠군.

10.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 중 [A]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는 폰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폰트 파일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 것이 좋다.

①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통일성에서 벗어난 문장은 삭제하는 게 어때?
② 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용어를 고려해 용어를 일관되게 일치시켜 주는 게 어때?
③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문장에 근거를 추가해 주는 게 어때?
④ 두 번째 문장은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생략된 주어를 밝혀 주는 게 어때?
⑤ 네 번째 문장은 학생들에게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문장으로 바꾸는 게 어때?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한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 부정문은 의미에 따라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길이에 따라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나누기도 한다. 한편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에는 '말다' 부정문이 쓰이고, '말다' 부정문은 '긴 부정문'만 가능하다.

'안' 부정문은 부정 부사 '안(아니)'으로 실현되는 짧은 부정문과 부정의 용언 구성 '-지 않다(아니하다)'로 실현되는 긴 부정문이 있고,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과 동작 주체의 의도를 부정하는 '의도 부정'이 있다. '안' 부정문의 서술어가 동사이고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 주체인 경우에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개 '단순 부정'으로 해석한다.

'못' 부정문은 부정 부사 '못'으로 실현되는 짧은 부정문과 부정의 용언 구성 '-지 못하다'로 실현되는 긴 부정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못' 부정문은 동작 주체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부정문이므로,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는 '못' 부정문에 쓰이기 어렵다. 한편 '못' 부정문은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지만, '긴 부정문'에 한하여 '화자의 기대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함'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쓰이기도 한다. 나아가 '못' 부정문은 화자의 능력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발전하여 완곡한 거절, 또는 강한 거부와 같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기도 한다.

'말다' 부정문은 명령문 및 청유문에서 부정의 용언 구성 '-지 말다'로 실현된다. 형용사는 대부분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서술어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말다' 부정문은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라도 기원이나 희망을 나타낼 때는 '말다' 부정문이 쓰이기도 한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태영: 새로 배정받은 ㉠ 동아리실이 그리 넓지 못해 고민이야. 우리가 쓰던 ㉡ 물품이 전부 안 들어가겠는데?
수진: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일단 물품을 옮겨 보자. 내일 어때?
태영: 미안하지만 ㉢ 나는 내일 못 와. 이번 휴일에는 집에서 좀 쉬고 싶어.
수진: ㉣ 나도 별로 안 내키는데, 다른 친구들은 내일 시간이 괜찮다고 하더라.
태영: 그래? 그럼 나도 와서 도울게. 그나저나 ㉤ 내일은 제발 덥지만 마라.

① ㉠의 '못' 부정문은 형용사인 서술어에 '긴 부정문' 형태로 실현되어 화자가 기대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② ㉡의 '안' 부정문은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 주체인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겠군.
③ ㉢의 '못' 부정문은 완곡한 거절이라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④ ㉣의 서술어는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못' 부정문에 사용될 수 없겠군.
⑤ ㉤의 '말다' 부정문은 형용사인 서술어에 '긴 부정문' 형태로 실현되어 화자의 기원이나 희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12.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중세 국어의 부정문은 현대 국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시한 예문들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이해해 봅시다.

[중세 국어] 世尊이 ⓐ 아니 오실씨
[현대 국어] 세존이 아니 오시므로

[중세 국어] 닐웨사 ⓑ 머디 아니ᄒᆞ다.
[현대 국어] 이레야 멀지 아니하다.

[중세 국어] 부텨를 몯 맛나며 法을 ⓒ 몯 드르며
[현대 국어] 부처를 못 만나며 법을 못 들으며

[중세 국어] 이 ᄠᅳ들 ⓓ 닛디 마ᄅᆞ쇼셔.
[현대 국어] 이 뜻을 잊지 마십시오.

① ⓐ를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의 '안' 부정문에 해당하는 부정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② ⓑ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처럼 중세 국어에서도 '단순 부정'에 해당하는 부정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③ ⓒ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처럼 중세 국어에서도 동작 주체의 의도를 부정하는 부정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④ ⓓ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처럼 중세 국어에서도 명령문을 부정하는 부정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⑤ ⓐ와 ⓑ를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의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에 해당하는 부정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13. <보기>를 바탕으로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변별적 자질이란 한 음소를 이루는 여러 음성적 특성들을 별개의 단위로 독립하여 표시한 것이다. 하나의 변별적 자질은 오로지 두 부류로만 구별해 주며, 해당 변별적 자질이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 부류는 '+', 그렇지 않은 부류는 '−'로 표시한다.

[자료 1]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
○ [후설성]: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뒤에 놓이는 성질. 후설 모음은 [+후설성], 전설 모음은 [−후설성]이다.
○ [고설성]: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높아지는 성질. 고모음은 [+고설성], 중모음과 저모음은 [−고설성]이다.
○ [저설성]: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낮아지는 성질. 저모음은 [+저설성], 중모음과 고모음은 [−저설성]이다.
○ [원순성]: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 성질. 원순 모음은 [+원순성], 평순 모음은 [−원순성]이다.

[자료 2] 단모음 체계표

혀의 전후 위치 / 입술 모양 /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① 'ㅡ'는 [+후설성]으로, 'ㅣ'는 [−후설성]으로 표시한다.
② 'ㅏ'와 'ㅓ'는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
③ 'ㅚ'와 'ㅜ'의 동일한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원순성]과 [−저설성]이다.
④ 'ㅔ'와 'ㅗ'는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동일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⑤ 'ㅐ'와 'ㅟ'는 [후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동일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14. <보기 1>의 ㉠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 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이유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불규칙 활용에는 ㉡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보기 2〉

○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 옷에 흙이 묻었다.
○ 나는 동생에게 출발 시간을 일러 주었다.
○ 우리는 한라산 정상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 드디어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섬기게 되었다.
○ 하늘은 맑고 강물은 파래 기분이 정말 상쾌했다.

	㉠	㉡	㉢	㉣
①	묻었다	이르러	일러, 우러러	파래
②	일러	이르러, 파래	묻었다	우러러
③	이르러	묻었다, 우러러	파래	일러
④	묻었다, 우러러	일러	이르러	파래
⑤	일러, 우러러	묻었다	파래	이르러

1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본용언에 조사가 붙거나 본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런데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리고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여 쓸 수 있다.

〈보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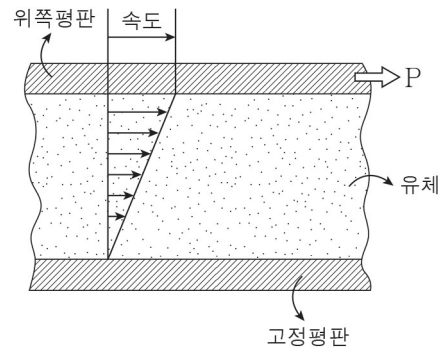
○ 그가 이 자리를 ㉠ 빛내 준다.
○ 오늘 일은 일기에 ㉡ 적어 둘 만하다.
○ 나는 어제 그 책을 ㉢ 읽어는 보았다.
○ 아마도 이런 기회는 ㉣ 다시없을 듯하다.
○ 이번에는 제발 열심히 ㉤ 공부해 보아라.

① ㉠은 본용언이 합성어이지만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이므로 '빛내'와 '준다'를 붙여 쓸 수 있다.
② ㉡은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둘'과 '만하다'를 붙여 쓸 수 있다.
③ ㉢은 본용언에 조사가 붙은 경우이므로 '읽어는'과 '보았다'를 붙여 쓰지 않는다.
④ ㉣은 본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이므로 '다시없을'과 '듯하다'를 붙여 쓰지 않는다.
⑤ ㉤은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이므로 '공부해'와 '보아라'를 붙여 쓰지 않는다.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액체나 기체처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쉽게 움직이거나 입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유체라고 ㉠ 부른다.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유체의 운동 원리를 ㉡ 다루는 유체역학에서는 응력과 점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유체의 특성을 설명한다.

응력이란 어떤 물질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물질의 내부에서 이에 대항하여 외부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응력은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물질의 표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응력을 전단응력이라고 한다. 유체는 이러한 전단응력이 작용할 때 그 형태가 연속적으로 변형된다. 이때 유체가 변형되는 양상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점성이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을 말한다.



<그림>

<그림>의 실험과 같이 매우 넓은 두 평행평판 사이에 어떤 유체가 들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평행평판 중 아래쪽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고정평판이고, 위쪽평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위쪽평판에 P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위쪽평판이 P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게 된다. 위쪽평판의 운동에 따라 평판 사이의 유체에는 전단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유체를 ㉢ 이루는 입자들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유체는 연속적으로 그 모습이 변형된다. 이때 위쪽평판에 접하고 있는 유체 입자들은 위쪽평판과 동일 속도로 이동하고, 고정평판에 접하고 있는 유체 입자들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는 유체가 지닌 점성 때문에 ㉣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두 평판 사이에 있는 유체 입자들의 속도는 고정평판으로부터 위쪽평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 그런데 <그림>에서 전단응력이 증가하게 되면 유체 입자들의 속도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체의 변형이 커져 전단응력에 따른 시간당 유체가 변형되는 변화율을 의미하는 전단변형률도 커지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text{전단응력} = \text{점성계수} \times \text{전단변형률}$$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에서 점성계수는 유체가 지닌 점성을 수치화하여 표현한 값으로, 유체마다 고유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성계수의 특징 때문에 전단응력이 일정하다면 점성계수에 따라 전단변형률은 달라지게 된다. 단, 유체의 점성계수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점성계수가 전단응력이나 전단변형률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한다. 뉴턴 유체는 점성계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변형률도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전단변형률을 가로축으로 하고 전단응력을 세로축으로 하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기울기는 점성계수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비뉴턴 유체는 전단응력의 크기에 따라 점성계수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단변형률과 전단응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변하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비뉴턴 유체에는 전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성계수가 감소하는 전단희박 유체와, 전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성계수가 증가하는 전단농후 유체가 있다. 또한 전단응력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변형이 없다가 항복응력이라고 지칭되는 일정한 전단응력을 초과하면 변형이 ㉤ 일어나는 빙햄 유체 등이 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전단응력이 작용하면 유체의 형태는 변형된다.
② 응력과 점성의 개념으로 유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점성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 작용 때문에 나타난다.
④ 전단응력은 물질의 표면에 평행하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⑤ 액체와 기체는 입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17. <보기>는 윗글의 실험 설계에 따라 실험한 결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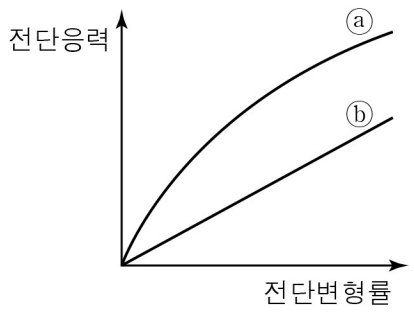
실험 / 측정 항목	A	B	C
전단변형률	10	20	10

* 온도와 압력은 모든 실험에서 동일하다.
* 실험에 사용된 유체는 각각 다른 뉴턴 유체이다.

① A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응력이 증가한다면 전단변형률은 증가하겠군.
② B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응력이 증가하더라도 점성계수는 변하지 않겠군.
③ A와 B에서 사용된 각각의 유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이 같다면 점성계수는 A에서 사용된 유체가 크겠군.
④ A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가 C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보다 크다면, 유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은 A에서 사용된 유체가 더 크겠군.
⑤ B와 C에서 사용된 각각의 유체의 점성계수가 같다면, C에서 사용된 유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이 더 크겠군.

18. <보기>는 유체 ⓐ와 ⓑ의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와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① ⓐ는 점성계수가 변하는 유체라고 할 수 있겠군.
② ⓐ는 전단응력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유체겠군.
③ ⓑ는 온도가 변화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
④ ⓑ는 전단응력에 따라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 달라지겠군.
⑤ ⓑ는 전단응력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변형률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유체겠군.

19.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마요네즈는 단순히 용기를 기울이기만 해서는 흘러나오지 않고, 일정한 힘 이상으로 눌러야만 나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마요네즈는 전단응력이 증가하여 (㉮)보다 (㉯) 변형이 일어나는 (㉰) 유체이기 때문이다.

	㉮	㉯	㉰
①	항복응력	커져야	빙햄
②	항복응력	커져야	전단농후
③	항복응력	작아져야	전단희박
④	외부의 힘	커져야	전단농후
⑤	외부의 힘	작아져야	빙햄

20. 문맥상 ㉠ ~ ㉤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 그 가게에서는 값을 비싸게 불렀다.
② ㉡: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주제로 다루었다.
③ ㉢: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소원을 이루었다.
④ ㉣: 사건의 목격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⑤ ㉤: 경기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정의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적어지는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경제학에서는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실업을 크게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등으로 분류하고 그 해결책을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A] 우선 마찰적 실업이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가 개인의 선택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는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 수준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 간의 불합치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자의 재교육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고용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다시 말해 경기적 실업은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때, 경기가 ⓑ침체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은 다른 종류의 실업에 비해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경제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고전학파에서는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 등의 가격 변수가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이들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의 액수를 의미하는 명목임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 즉 임금의 실제 가치를 의미하는 ㉡실질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가가 10% 정도 하락하게 되면 명목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10%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물가가 하락하기 전보다 실질임금이 10% 정도 상승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경기적 실업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이로 인해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명목임금은 탄력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명목임금의 하락은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실질임금은 경기가 침체되기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간다. 결국 기업에서는 명목임금이 하락한 만큼 노동의 수요량을 늘릴 수 있게 되므로 노동의 초과공급은 사라지고 실업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따라서 고전학파에서는 인위적 개입을 통해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역할에 반대한다.

그러나 케인즈학파에서는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 등의 가격 변수가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명목임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하락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고전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목임금이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인즈학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화폐환상현상이다. 화폐환상현상이란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명목임금이 하락하였을 때의 실질임금이, 명목임금의 하락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노동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화폐환상현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결국 명목임금은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기 이전의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된다. 이는 기업에서 노동의 수요량을 늘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실업은 지속된다. 따라서 케인즈학파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노동의 수요를 늘리는 등의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① 실업의 정의
② 실업의 발생 원인
③ 화폐환상현상의 유형
④ 실업의 종류에 따른 정부의 역할
⑤ 명목임금의 탄력적 작용에 대한 관점 차이

22.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가가 상승하고 ㉠이 하락한다면, ㉡은 상승하겠군.
② 물가의 변화가 없고 ㉠이 하락한다면, ㉡도 하락하겠군.
③ 물가가 하락하고 ㉠이 변하지 않는다면, ㉡은 상승하겠군.
④ ㉠이 상승한다면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의 액수는 증가하겠군.
⑤ ㉡이 상승한다면 ㉠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하겠군.

23.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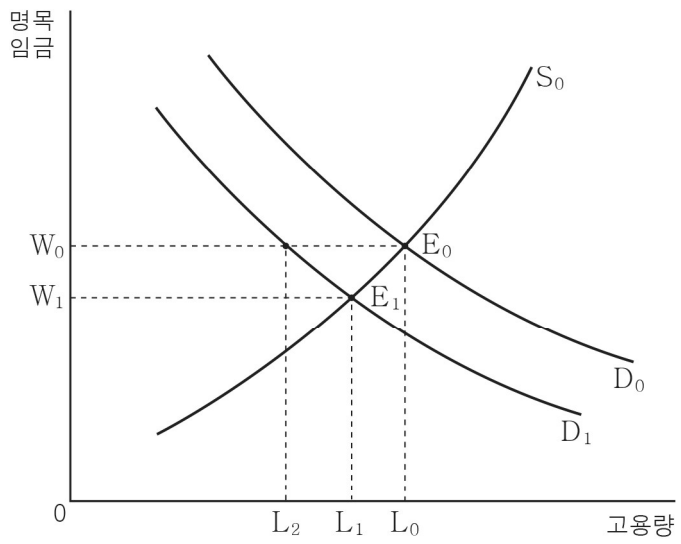
〈 보 기 〉

ㄱ. 20년 가까이 카메라 필름 제조 회사에서 필름 제조 전문가로 근무하던 갑은 새로운 필름 제조 기술의 등장으로 회사의 생산 시설이 교체됨에 따라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ㄴ. A 의류업체 직원인 을은 평소 근무하고 싶었던 B 의류업체에서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① ㄱ과 달리 ㄴ은 경기 침체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② ㄱ과 달리 ㄴ은 사회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큰 손실을 발생시키는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ㄴ과 달리 ㄱ은 일자리를 스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ㄴ과 달리 ㄱ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이라 할 수 있겠군.
⑤ ㄴ과 달리 ㄱ은 노동자의 기술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군.

24. <보기>는 경기적 실업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S_0은 노동의 공급곡선, D_0과 D_1은 노동의 수요곡선이다.
* E_0은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기 전에 형성되어 있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다.
* 제시된 상황 이외의 모든 경제적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D_0이 D_1로 이동하여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했다면, 고전학파에서는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겠군.
② D_0이 D_1로 이동하여 W_0이 W_1 수준으로 하락했다면, 고전학파에서는 그 원인을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하겠군.
③ D_0이 D_1로 이동하더라도 W_0이 W_1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케인즈학파에서는 그 원인을 화폐환상현상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④ D_0이 D_1로 이동하여 실업이 발생했다면, 케인즈학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군.
⑤ D_0이 D_1로 이동하더라도 명목임금이 W_0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면, 케인즈학파에서는 L_0에서 L_2의 차이만큼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겠군.

25.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짧게 줄어듦.
② ⓑ: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
③ ⓒ: 이제까지의 일이나 관계를 해결하여 없애 버림.
④ ⓓ: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
⑤ ⓔ: 어떤 상태나 현상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지탱함.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연의 일치에 지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봉무제 씨 그가 고모부와 마찬가지로 **이북 출신**이며 홀아비라는 사실이었다. 그들 두 가지 공통점이 어딘지 모르게 그들 두 사람을 하나로 비끄러매고 있다는 인상을 나는 강하게 받았으며, 따라서 내가 회사를 출발하여 인쇄소로 향해 오면서 얼핏 겪었던 착각 내지는 혼동이 반드시 착각이나 혼동만은 아닐 뿐더러 고모부와 봉무제 씨가 동일인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방증이 바로 그와 같은 공통점이었구나 하는 다른 또 하나의 기묘한 착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화제 속에 끼여들 차례였다.

㉠ "조현봉 씨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과장의 지적도 있고 해서 나는 늙다리 문선공*을 구태여 본인이 싫어한다는 별명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신경을 가외로 써야만 했다. 사실 봉무제란 **별명**이 나에겐 그럴 수 없이 친숙한 반면에 조현봉이란 **본명**은 너무 생소한 것이었다.

"그 영감 속셈이 워낙 굴속 같아서 어느 누구도 짐작을 못 하죠. 무제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겠죠?"

"알고 있습니다."

"인생무상쯤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맞는 해석일지도 모르죠. 영감이 느끼는 허무주의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 "그렇게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매일 되풀이되는 단순한 작업에서 오는 무심한 장난이나 악의 없는 사보타주* 같은 건 혹 아닐까요?"

"한선생이 조영감한테 직접 질문해 보시지요."

"제가 물어 보면 제대로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 아마 하긴 할 겁니다. 영감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갑자기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선 다음에 작업을 중단하고 유령같이 흐느적거리면서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의 대답인 셈입니다."

말을 마치고 과장은 자기 휘하의 공원들을 감독하기 위해 외빈용 교정실을 떠났다. 그가 떠나고 난 자리에 커다란 의문부호 하나가 덩그렇게 남았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꽤나 요란했다. 잠시 잊고 있던 인쇄잉크 냄새도 다시 맡을 수 있었다. 활자들이 풍기는 납 냄새도 그 속엔 섞여 있을 거라고 나는 막연히 짐작을 해보았다. 납 같은 비철금속에도 과연 냄새다운 냄새가 있을까? 나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멋대로 단정을 내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있어서 그 돌덩이처럼 무거운 냄새가 사람을 타고 누르면서 납작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 출판사에 입사해서 내 몫의 **교정지**를 받아 보고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페이지마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무제'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처럼 **생경한 단어**는 솔직히 말해서 난생 처음 대하는 처지여서 담당 문선공의 기계적인 실수 아니면 억지로 두들겨맞춘 조어로만 알았다.

뭔가 심상찮은 조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초교 한 꼭지를 다 떼고 나서부터였다. 무제가 무슨 말이냐고 나는 옆자리의 동료에게 슬쩍 물어 보았다. 그 동료는 대뜸 입가에 쓴웃음을 머금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벼운 핀잔이 따랐다. 사전은 그런 때 안 쓰고 언제 쓸 거냐는 이야기였다. 듣고 보니 지당하신 말씀이기도 했다.

무제(霧堤) [명]【해】 배 위에서 보면 마치 육지처럼 보이는 먼 바다의 안개.

이희승 씨의 국어대사전을 뒤져 본 결과 이런 설명이 나왔다.

[중략 줄거리] 나는 평소 나에게 의지하려 했던 고모부를 부랑자로 위장시켜 갱생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봉무제 씨의 외로운 죽음에 대해 전해 들은 후 고모부에게 죄의식을 느끼며 고민하게 된다.

아직도 방울져서 떨어지는 눈물을 수습할 생각도 없이 고모부는 내 얼굴을 멀뚱멀뚱 올려다보았다.

"생각이 안 나……."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고모부가 중얼거렸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 전등 스위치를 내려 버렸다. 그때까지 나는 스위치를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안 나……."

깜깜해진 방 안에서 도로 한 덩어리의 실루엣으로 돌아간 고모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무리 잠을 안 자고 머리를 쥐어짜 봐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순간 나는 하마터면 아아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뻔했다. **이번**에는 얼굴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은 이미 잊어버렸지만 이름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는 얼굴 잊은 것만 가슴아파하고 있었다.

"우리 그 셋째 녀석 이름을 어떻게든 떠올려 보려고 밤새도록 방바닥에다 대가리를 찧어 보고 머리털을 쥐어뜯어 봐도 끝끝내 알아낼 도리가 없어. 날은 훤히 밝어 오는데, 날이 다 새기 전에 그 녀석 이름을 기어코 생각해 낼 작정이었는데 어디다 붙들어맨 것 같이 ㉣이놈의, 이 미련헌 놈의 대가리가 당최 꼼짝도 허질 않어."

한바탕 안타까운 중얼거림 끝에 퍽하고 머리통을 방바닥에 부딪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알리바바의 형 카심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주문을 까먹는 바람에 바위굴 안에 갇혀 도둑들한테 죽음을 당하게 된 카심 같은 꼴이었다. 나는 '열려라 참깨!' 대신 '이승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다. 이북에 남겨 두고 온 자신의 셋째 아들 이름을 두번 다시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벽력같이 일깨워 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고모부, 끝내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도 그건 결코 고모부 잘못이 아닙니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일이나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나는 어느 틈에 고모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먼 바다의 안개를 육지로 착각하는 일이 고모부한테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젠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고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을 바로 그때 나는 무슨 업보인지는 몰라도 고모부의 여생을 책임지는 일이 다른 누구 아닌 바로 내 발등에 떨어졌음을 이미 직감했던 것이다. 앞으로 내가 **승곤이**의 **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하고 동갑내기인 그의 이름을 끝까지 고모부한테 발설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그에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연명하며 승곤이를 기다리라고 위로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잔인한 행위가 될 것이었다.

"생각이 안 나……."

고모부의 **중얼거림**을 들으면서 나는 아내에게 **갱생원**이란 데가 원래 지낼 만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넌지시 귀띔해 주었다.

—윤흥길, 「무제(霧堤)」—

* 문선공: 신문사나 인쇄소 등에서 활판 인쇄를 맡아서 하는 사람.
* 사보타주: 노동이나 일을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법.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② 특정 인물과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③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④ 등장인물의 외양적 특징을 부각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⑤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빈번하게 교차하며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7.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이해되지 않는 조현봉 씨의 행동에 대한 '나'의 궁금증이 나타나 있다.
② ㉡: 인쇄소 과장의 생각과는 다른 '나'의 추측이 드러나 있다.
③ ㉢: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쇄소 과장'의 짐작이 내재되어 있다.
④ ㉣: 셋째 녀석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모부'의 자책이 나타나 있다.
⑤ ㉤: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고모부의 행동에 대한 '나'의 원망이 드러나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 속에서 '무제'는 북에 가족을 두고 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물들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상처의 흔적을 의미한다. 이는 조현봉 씨에게서는 비상식적 행위의 반복으로, 고모부에게서는 혈육을 그리워하는 행위의 반복으로 표출된다. 한편 '나'는 두 사람을 동일시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서 연민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나'의 인식 변화는 고모부의 훼손된 삶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① 내가 '이북 출신'인 조현봉 씨의 '본명'보다 '별명'을 친숙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 자신과 그를 동일시하며 느끼는 연민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② 조현봉 씨가 '교정지'의 '곳곳에' '생경한 단어'를 반복해서 넣는 모습을 통해 무의식 속에 내재된 상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③ 고모부가 '지난번'에는 아들의 '얼굴'을, '이번'에는 '이름'을 떠올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통해 혈육을 그리워하는 행위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④ 내가 '승곤이'의 이름을 고모부에게 말하지 않고 그의 '대역'을 '수행'하려는 모습을 통해 고모부의 훼손된 삶을 치유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⑤ 내가 고모부의 '중얼거림'을 들으면서 아내에게 '갱생원'이 지낼 만하지 못한 곳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나'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겠군.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과 들이
늙은 풍경에서 **앙상한 계절**을 시름할 때
나는 **흙을 뚜지고 들어**왔다
차군 달빛을 피해
둥글소의 앞발을 피해
나는 깊이 ㉠ 땅속으로 들어왔다

멀어진 태양은
아직 꺼머첩첩한 의혹의 길을 더듬고
지금 **태풍이 미쳐 날**뛴다
얼어빠진 혼백들이 지온*을 불러 곡성이 높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다

온갖 어둠과의 **접촉**에서도
생명은 빛을 더불어 사색이 너그럽고
갖은 학대를 체험한 나는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리라
풀풀의 물색으로 평화의 의장도 꾸민다

얼음 풀린
냇가에 버들이 휘늘어지고
어린 종다리 파아란 항공을 시험할 때면
나는 봄볕 짜듯한 ㉡ 땅 우에 나서리라
죽은 듯 눈감은 명상—
나의 **동면**은 **위대한 약동**의 전제다

—이용악, 「동면하는 곤충의 노래」—

* 지온: 땅의 온도.

(나)
㉢ 느티나무 둥치에 **매미 허물**이 붙어 있다
바람이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다
나는 허물을 떼려고 손에 힘을 주었다
순간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허물이 갑자기 **몸에 힘**을 주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허물의 발이 느티나무에 더 착 달라붙었다
허물은 허물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를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허물의 힘에 놀라
슬며시 손을 떼고 ㉣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보았다
팔순의 어머니가 무릎을 곧추세우고 **걸레**가 되어 마루를 닦는다
어머니는 나의 허물이다
어머니가 **안간힘**을 쓰며 아직 느티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까닭은
아들이라는 매미 때문이다

—정호승, 「허물」—

29.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가)와 달리 (나)는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나)와 달리 (가)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다양한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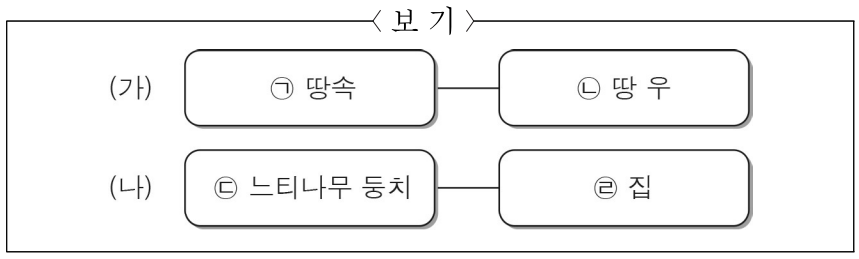
〈 보 기 〉
이 작품은 동면하는 곤충을 화자로 설정하여 일제 강점기의 혹독하고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동면하는 곤충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녀 능동적으로 추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인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그런데 이때 곤충이 떠올리는 봄에 대한 전망은 당대 현실이 극복될 것이라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짐작하게 한다.

① '흙을 뚜지고 들어'가 '동면'하며 '위대한 약동'을 준비하는 곤충의 모습은 능동적인 주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둥글소'를 도와 '앙상한 계절'과 '차군 달빛'에 대항하는 곤충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 혹독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③ '태풍이 미쳐 날'뛰고 '혼백들'이 '얼어빠진' 상황에서도 '자신의 체온에 실망'하지 않는 곤충의 모습은 주체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④ '온갖 어둠과' '접촉'하면서도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는 곤충의 모습은 동면이라는 인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주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⑤ '풀풀의 물색'으로 단장하며 '얼음 풀린' 계절에 나설 것을 떠올리는 곤충의 모습은 당대 현실이 극복될 것이라는 작가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1.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미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질 수 있다는 화자의 추측에는 어머니 없이는 자식의 삶도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②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허물'의 이미지와 '걸레'가 된 '팔순의 어머니'의 이미지는 자식을 위한 헌신으로 남루해진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몸에 힘'을 주는 허물을 떼려는 '힘'은 자식을 향한 끈질긴 모성을 의미하고 있다.
④ '어린 매미'가 벗어 놓은 '허물'이 어린 매미를 낳은 어머니라는 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는 점에서 화자는 매미의 허물과 자신의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있다.

32. <보기>는 (가)와 (나)를 시상 전개에 따라 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 ~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① ㉠과 ㉢은 화자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미래의 공간이다.
② ㉡과 ㉣은 화자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이다.
③ ㉠은 화자의 행위에 담긴 의미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대상의 행위에 담긴 의미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④ ㉡은 삶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 태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⑤ ㉡은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 머무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혐오하는 대상이 머무는 공간이다.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현대 사회는 개인이 자아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병리적 사회가 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시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대 사회가 병리적 사회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네트는 어떤 점에서 사회적 인정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한다고 보았을까?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개인의 자아 형성 과정을 '목적격 나'와 '주격 나'의 관계를 통해 밝힌다. 여기서 목적격 나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생각과 기대를 일반화하여 형성한 자아상을 말한다. 즉 목적격 나는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아상이다. 그리고 주격 나는 목적격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기 이전의 자아상으로, 개인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주격 나는 목적격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할 수도 있다.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할 때는, 주격 나가 새로운 자아상을 목적격 나에게 주장할 수 있고 목적격 나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개인은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호네트에 의하면 개인의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는 데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 즉 개인과 타인의 상호 인정이 전제된다. 그래서 개인은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한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사회적 무시를 경험하면, 해당 개인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된다.

호네트는 상호 인정 관계와 이에 따른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 첫 번째는 원초적 관계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정서적 배려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욕구와 본능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원초적 관계에서 정서적 배려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정서가 충족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학대나 폭행과 같은 무시를 경험하면 자신감은 파괴된다. 두 번째는 권리 관계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옳고 그름의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법적 권리를 존중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권리 관계에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은, 사회로부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자기존중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마땅히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사회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기존중감은 파괴된다. 세 번째는 가치 공동체 관계로, 개인이 어떤 가치나 목적을 공유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의 개성, 즉 능력과 속성을 인정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개인은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해당 개인은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인 자부심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부심은 파괴된다.

호네트는 이처럼 세 가지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때, 개인은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상호 인정 관계에서 무시에 의해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되면 개인은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개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인정질서에 저항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정질서란 개인의 자아를 인정 대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나 원칙이다. 호네트는 개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정질서에 주장하면 개인은 기존 인정질서와 대립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저항은 기존 인정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모든 저항을 ㉠ 인정투쟁이라고 명명한다. 특히 그는 권리 관계나 가치 공동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정투쟁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호네트는 인정투쟁이 현대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회복시키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3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관점에서 자아와 자기의식 형성 방법을 소개하며, 자기의식 형성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②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과 자기의식을 유형화하며, 자기의식과 자아실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③ 특정 관점에서 자기의식의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기의식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④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을 역사적 변천에 따라 설명하고, 자아 형성 과정의 특징과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⑤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며, 자아 형성 과정과 자기의식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무시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저항의 결과이다.
② 무시는 현대 사회를 병리적 사회로 만드는 원인이다.
③ 무시는 개인이 원초적 관계에서 형성한 자신감을 파괴한다.
④ 자신의 능력과 속성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부정되는 것은 무시에 해당한다.
⑤ 개인이 마땅히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은 무시에 해당한다.

[35 ~ 36]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5번과 36번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자료 1]
A 씨는 도예가인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전통 도예 기술을 전수받으라는 부탁을 받았다. 존경하던 아버지께 인정받아 기뻤지만 걱정도 앞섰던 A 씨는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 덕분에 믿음을 갖고 기술을 익혔다. 결국 A 씨는 아버지의 장인정신을 계승한 도예가가 되었고, 장인정신을 중시하는 도예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되어 긍지를 느꼈다.

[자료 2]
이민자 B 씨는 △△시로부터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상심했다. 하지만 B 씨는 이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이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수 있었다. 이후 여러 이민자들이 가세하여 시위가 확대되었고, 결국 △△시는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이민자들에게 승인하였다. 이에 B 씨는 자신이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35. 윗글의 '목적격 나'와 '주격 나'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료 1]: A 씨의 '주격 나'는 가족들의 기대를 일반화하여 '목적격 나'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자료 1]: A 씨의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A 씨와 아버지가 상호 인정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자료 2]: B 씨의 '주격 나'는 △△시로부터 형성한,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목적격 나'에 반발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자료 2]: B 씨가 시위를 한 이유는 B 씨의 '주격 나'가 주장한 새로운 자아상이 △△시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자료 2]: B 씨가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은 것은 B 씨의 '주격 나'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아상을 △△시로부터 형성한 '목적격 나'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6.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자료 1]의 A 씨와 [자료 2]의 B 씨는 모두 원초적 관계에서 정서적 배려를 받아 자신감을 형성했겠군.
② [자료 1]과 달리 [자료 2]에서는, 권리 관계에서 파괴되었던 긍정적 자기의식을 회복한 것이겠군.
③ [자료 1]과 달리 [자료 2]에서는, 기존 인정질서에 대한 개인의 저항이 기존 인정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된 것이겠군.
④ [자료 2]와 달리 [자료 1]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의 가치 범위가 확장되어 새로운 인정질서가 형성된 것이겠군.
⑤ [자료 1]의 A 씨는 도예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됨으로써 자부심을, [자료 2]의 B 씨는 △△시로부터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음으로써 자기존중감을 형성했겠군.

37. 윗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홉스는 인간들이 갖는 동일한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서로가 적이 되어 ㉡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투쟁은 지속적 불안 상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일부 양도하고 사회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① 호네트는 ㉠을 불안이 지속되는 상태로, 홉스는 ㉡을 불안이 해소된 상태로 보고 있군.
② 호네트는 ㉠에 의해 개인이 상대에게 굴복하게 되고, 홉스는 ㉡에 의해 개인이 상대와 공존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③ 호네트는 ㉠의 결과 개인이 인정질서를 확장한다고, 홉스는 ㉡의 결과 개인이 사회 질서에 복종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④ 호네트는 ㉠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홉스는 ㉡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전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⑤ 호네트는 ㉠을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홉스는 ㉡을 개인의 욕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군.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백이 즉시 일어나서 별당으로 다가가서는, 창문을 두드리며 호통을 쳤다.

"이놈, 이놈, 이 서방아! 내가 여기에 왔느니라. 연분이 이미 맺어졌고 나라의 법이 삼엄한데 혼인이 무엇이냐?"

윤백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들어 병풍을 들이치고 저고리를 찾아 쥐고는 거침없이 뛰어나가니, 이 서방의 거동 보소. 원앙금비취침에 사람의 이목을 물리치고 단잠을 자고 있었는데, 뇌성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이 산란하여 경황없이 일어나더니, 별당 뒷문으로 뛰어나가 대감의 방에 뛰어들어서는 창황히 아뢰기를,

"아버님, 잠을 깨옵소서. 밤중에 큰 변이 났으니 잠을 깨옵소서. 어서 다들 잠을 깨옵소서. 아버님께서는 무슨 일로 음행 있는 신부를 찾느라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라 하니, 대감이 크게 놀라 하인들을 불러 모으되 분기가 치밀어 어찌할 줄 몰랐다. 설진사 또한 그 소리를 듣고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 석 자짜리 칼을 손에 들고 별당으로 달려가 설낭자에게 물었다.

"너와 내가 한집에서 이십 년을 살았느니라. 너의 행실이 흠잡을 데 없었는데 내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니, 너는 바른대로 다 아뢰어라. 너와 내가 한 목숨으로 죽기가 두려우냐? 이 병판은 세도가 제일인지라 치죄(治罪)하지 못할 것이 없으니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죽어도 무슨 일인지 알고나 죽고 싶다. 죄를 모르고 이리 죽으면 오죽하겠느냐? 바른대로 아뢰어라."

설낭자의 거동 보소. 번개 같은 두 눈을 뜨더니 백옥 같은 손을 들어 구슬 같은 눈물을 닦고 단호히 말했다.

[A] "소녀는 이 일에 무죄하옵니다. 하늘이 아시고 귀신이 아옵니다. 오늘 이 지경에 떨어진 것은 어찌된 일인지 소녀는 알지 못하옵니다. 어찌 죽기를 주저하리이까마는, 이 자리에서 죽사오면 죽어도 억울한 원혼이 되어 황천구원(黃泉九原)에 갈 곳이 없사옵니다."

하고는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설진사가 그 거동을 보니 차마 더는 추궁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돌아와서는 식사를 물리치고 굶어 죽기만 기다렸다.

이병판 대감과 이도령은 창황한 중에 장안으로 돌아갔는데, 노하고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도령이 그 부친께 나아가더니,

"소자는 강산 구경을 하고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고하고는 떠나갔다.

정부인과 황부인이 밤낮 모여 앉아 윤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윤백이 돌아와서는 자기가 한 일을 아뢰고 훔쳐 온 저고리를 내놓았다. 두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천금을 상으로 주고는, 그 저고리를 꼭꼭 싸서 농 안에 숨겨 놓고는 대감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중략 줄거리] 설낭자는 누명을 벗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설낭자는 장안으로 김동지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동지 며느리와 함께 장안으로 간다.

하인들을 거느린 김동지 며느리가 정부인이 있는 방으로 한달음에 뛰어 들어가서는, 설낭자의 저고리를 감추어 두었던 장롱을 대번 끌어내려 했다. 정부인과 황부인이 놀라,

"네가 어떤 년이기에 이 방에 들어와서 이 장롱을 도적질하느냐? 그 죄가 죄사무석(罪死無惜)*이로다."

호통을 치면서 한사(限死)하고* 달려들었으나, 김동지 며느리가 그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따라온 하인들이 또한 가로막았다. 끝내 김동지 며느리가 장롱을 든 채 밖으로 뛰어나와서는, 한 주먹으로 장롱을 때려 부수고 저고리를 찾아내었다. 김동지 며느리가 그것을 손에 높이 들고 소리쳤다.

"작은색시, 이것 보오. 작은색시가 잃어버렸던 저고리가 여기 와 있나이다."

이때 정부인이 뒤쫓아 나와서는 하인들을 꾸짖고 김동지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다.

"그 더러운 년의 저고리가 어찌 내게 있단 말이냐? 대감께 이를 것이라."

그러자 김동지 며느리가 그 저고리를 들고는 대감의 거처로 들어갔다. 대감 앞에 저고리를 펼쳐 놓고 고하기를,

[B] "우리 작은색시가 첫날밤에 잃었던 저고리가 어찌하여 정부인이 거처하는 방의 장롱 안에 있사오니까? 괴이한 일이옵니다. 정부인은 이것이 자기 저고리라 하니, 정부인과 설낭자를 불러 저고리의 사연을 들어 보시옵소서."

하였다. 대감이 듣고는 과연 괴이하다 여기고, 먼저 정부인을 불러들였다.

"이 저고리에 대해 말해 보아라."

"그 저고리의 품마기는 길이가 한 자 한 치옵고, 소매와 진동은 이러저러하옵니다."

뒤이어 김동지 며느리가 설낭자를 불렀다.

"이 저고리에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누명을 쓴 것과 결백을 증명할 길이 있사오니 정신을 차리고 단단히 말씀하오."

설낭자가 일어나서는 팔자아미를 숙이면서 가는 목소리를 길게 빼어 옥구슬이 구르는 듯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영남 여자의 옷은 별다른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소녀가 일곱 살에 이 저고리를 지었을 때, 소녀의 어머니께서 기특하다 여겨 저고리 안에 붉은 실로 '설운설'이라고 소녀의 아명을 수놓아 새기셨사옵니다. 그것을 보면 모두 알 것이옵니다."

김동지 며느리가 그 말대로 저고리 안을 뜯어내고 보니, 정말로 붉은 실로 '설운설'이라 새겨져 있는 것이었다. 대감이 크게 분노하여 맏며느리를 잡아 하옥하고는, 즉시로 설낭자를 행례* 하여 별당으로 보내어 거처하게 하였다.

대감이 이로써 정부인의 간사함을 알았으나, 어찌하여 일이 그리 되었는지는 몰랐다. 대감이 정부인과 황부인을 모두 잡아들여서는 자백을 받고자 물었다.

"너희들이 무슨 일로 내 아들을 시기하여 내 집을 망하게 하려 하였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살기를 바랐더냐? 이 불측한 일은 어느 하인에게 시켜서 하였느냐?"

그러나 정부인도 황부인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때 김동지 며느리가 대감 앞에 나섰다.

"그 하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묻지 아니하여도 아옵니다. 대감님네 수청지기* 윤백이라 하는 놈이옵니다. 정부인을 잡아 오라고 대감께서 분부할 때, 그놈이 죽을 듯 겁을 내면서 얼굴색이 변하였으니, 그놈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하옵니다."

대감이 듣고는,

"그 말이 옳다."

하고, 윤백을 곧 잡아내어 주리채에 올려 묶어 놓았다.

—작자 미상, 「설낭자전」—

* 죄사무석: 죄가 무거워서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함.
* 한사하다: 죽기를 각오함.
* 행례: 예식을 행함.
* 수청지기: 주인을 가까이에서 시중들고 심부름하는 노복.

38.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②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④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사건의 비현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3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고, [B]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칭찬하고 있다.
② [A]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며 자신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③ [A]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④ [A]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B]에서는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
⑤ [A]에서는 초월적 존재를 언급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과의 친분을 상기시켜 자신의 애통함을 강조하고 있다.

40. <보기>는 '저고리'의 이동 경로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① 정부인과 황부인의 계략으로 저고리는 ㉠에서 ㉡으로 옮겨졌다.
② ㉠에서 도난당한 저고리로 인해 설낭자가 받은 오해는 ㉢에서 해소된다.
③ ㉡에서 ㉢으로 저고리가 옮겨진 이유는 이대감의 명령 때문이었다.
④ 정부인과 황부인이 ㉡에 숨겨 두었던 저고리는 김동지 며느리에 의해 발견되었다.
⑤ ㉢에서 정부인은 ㉡에 있던 저고리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설낭자전」은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통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선과 악의 대립은 한 가정에 속한 기존 인물들이 그 가정에 편입하려는 인물을 배척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 외부의 인물인 조력자는 사건의 내용을 간파하고 주인공이 제시한 결정적인 단서를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① 설낭자가 어머니와의 추억을 말하는 모습에서 주인공의 경험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로 활용됨을 알 수 있군.
② 설진사가 칼을 들고 설낭자에게 첫날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추궁하는 모습에서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③ 이대감이 정부인을 하옥하고 설낭자를 행례하게 하는 모습에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김동지 며느리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지목하는 모습에서 가정 외부의 인물인 조력자가 사건의 내용을 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정부인과 황부인이 윤백에게 시킨 일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설낭자의 모습에서 가정에 편입하려는 새로운 인물이 배척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이 쓸듸 업셔 성상(聖上)이 바리시니
부귀를 하직하고 빈천(貧賤)을 낙을 삼아
일간모옥(一間茅屋)을 **산수간(山水間)**에 지어 두고
삼순구식(三旬九食)을 먹으나 못 먹으나
십년일관(十年一冠)을 쓰거나 못 쓰거나
분별이 없어거니 시름인들 있을소냐
만사를 다 잊으니 일신(一身)이 **한가**하다

<중략>

삼산(三山)이 어드메요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무심(無心)한 구름은 취수(翠岫)*에 걸려 있고
유의(有意)한 갈매기는 백사(白沙)에 버려 있다
아침에 캐온 취를 점심에 다 먹으니
일없이 노닐면서 석조(夕釣)를 말녀 하야
갈건(葛巾)을 기우 쓰고 마의(麻衣)를 님의차고
낙대를 둘러메고 조대(釣臺)로 나려가니
흐르느니 물결이요 뛰노느니 고기로다
은린옥척(銀鱗玉尺)을 버들 움에 꿰어들고
낙조강호(落照江湖)로 적막히 돌아오며
산가촌적(山歌村笛)을 어부사(漁父詞)로 화답하니
서호매학(西湖梅鶴)*은 겨루지 못하여도
증점영귀(曾點詠歸)야 이에서 더할소냐
기산영천(箕山潁川)에 **소허(巢許)*의 몸**이 되야
천사(千駟)*를 냉소하니 만종(萬鍾)*이 초개(草芥)*로다
㉠ 내 살림살이 담박하니 어느 벗이 찾아오리

–작자 미상, 「낙빈가」–

* 취수: 숲이 우거져 푸른 빛이 도는 산봉우리.
* 서호매학: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 삼으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을 비유한 말.
* 소허: 요임금 시절 부귀공명을 멀리하며 살았던 인물들.
* 천사: 화려하고 호화로운 시정에서의 생활을 비유한 말.
* 만종: 많은 녹봉.
* 초개: 지푸라기.

(나)

내가 의주로 귀양 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세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서까래 몇 개로 정자를 얽고 띠로 지붕을 덮어 놓으니, 대여섯 사람은 앉을 만했다.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채소밭이라고 해야 폭이 겨우 여덟 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걸 보고 이름을 규정(葵亭)이라고 했다.

손님 가운데 ㉡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혜초로 자기가 사는 집의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하여 만의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혜초는 식물 가운데 굳고도 세어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로 서서 명성과 덕망이 울연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서,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또한 그 식물들의 수치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귀나 샅바귀, 무나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도 옛 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 분수를 지킬 줄 아니 그것을 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대개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절조이니,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써 사물을 분별하여 시비를 가리는 데 잘못됨이 없는 것, 이것은 군자도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 오던 덕목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연약한 뭇 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유독 소나무나 대나무나 매화나 국화나 난이나 혜초만이 귀한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고 먹고 하는 것이 임금님의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한술 뜨고 나서 심휴문(沈休文)이나 사마군실(史馬君實)의 시를 읊을 때마다 해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가 없었으니,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

손님이 말했다.

"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그대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

—조위, 「규정기」—

4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② 언어유희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희화화하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부르는 말의 반복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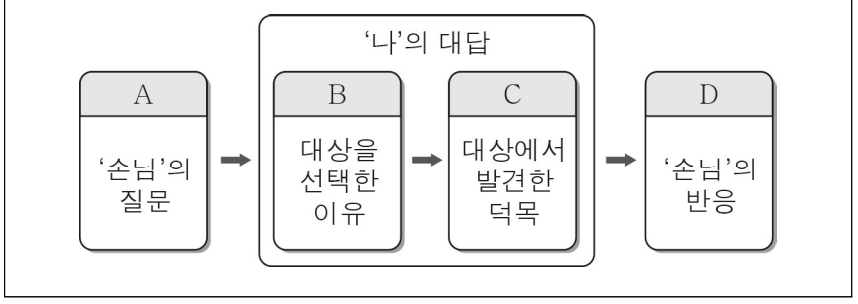
〈 보 기 〉

이 작품에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살아가려는 귀거래 의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며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 '이 몸이 쓸듸 업셔' 버림받았다는 것에서 정치 현실을 떠난 화자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② '산수간'에서 '만사를 다 잊'은 채 '한가'하게 지내는 것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여기'가 '무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연으로 돌아온 화자의 만족감을 짐작할 수 있군.
④ '아침에 캐온 취'를 먹으며 '일없이 노닐'고 있는 것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소허의 몸'이 되어 '천사를 냉소'하는 것에서 자신의 뜻을 속세에서 알아주기 바라는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군.

44. <보기>는 (나)의 '정자 이름에 대한 대화'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① A에서 '손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식물들과 해바라기를 대비하며 '나'가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묻고 있다.
② A에서 '손님'이 해바라기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해, B에서 '나'는 해바라기를 세상에 우뚝 홀로 선 사람들에 비유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B에서 '나'는 특별한 풍치나 향기가 있는 식물로 정자 이름을 짓지 않은 것이 자신의 처지를 고려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④ C에서 '나'는 해바라기의 속성을 충성이라는 덕목과 연결 지어 '손님'의 평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⑤ D에서 '손님'은, A에서 가졌던 정자 이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4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성상'과의, ㉡은 '임금님'과의 갈등 해소를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성상'의, ㉡은 '임금님'의 입장 변화로 인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성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은 '임금님'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있다.
④ ㉠은 '성상'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은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일반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성상'을 비난하지만, ㉡은 '임금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